

가정복지사와 가정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분석

-가정복지 관련 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Demand for the Family Worker and Family Well-being-Program
: Focused on the Users of Related Institutions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부교수 송혜림**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lsan Univ.
Associate Prof : Song, Hye Rim

〈 목 차 〉

- | | |
|--------------|--------------|
| I. 연구목표 | IV. 연구결과의 분석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mand for the family worker and family well-being program. For this analysis, the data taken from 367 married women who are using at least 1 program in related institutions in Ulsan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most demanded role of family worker is family counselor and information performer. So the education system and curriculum for family worker should take more the counseling and information related contents.
2. The most demanded family well-being programs are the communication skill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parenting role. The demand for the family well-being programs is different with the users' age, motivation, institutions, etc. So the organization of the program can vary as users'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s.

* 이 논문은 2002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 연락처자: 송혜림 (hrsong@mail.ulsan.ac.kr)

Key Words : 가정복지사(family worker), 가정복지프로그램 (family well-being program), 가정복지시설(family well-being institution)

I. 연구목표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의 공존을 경험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과제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문민정부, 참여정부의 등장과 함께 '복지'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어 왔으며, 복지의 개념도 어떤 일정한 대상과 범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즉, 복지가 문화와 결합하고 있으며, 교육과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분배의 정의·삶의 질 향상·평화·행복 등의 개념이 복지와 결합되어, 이제 복지는 매우 보편적이고도 대중적이며 일상적인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지에 대한 관심은 또한 다양한 학문분야 연구자들에게 어떤 방식의 연구를 통하여 복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들을 축적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새로운 연구의 패러다임과 주제 그리고 적용방식 등을 모색할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학이나 생활과학의 경우 그 학문적 목표 자체가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 그리고 개인·가족·사회의 복지증진이며, 따라서 복지사회를 주도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갖고 있는 학문분야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실천성의 측면도 따라서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정관리학의 경우 기존의 연구들을 복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이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함과 동시에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성

찰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정관리학의 하위 연구영역, 즉 가정자원관리학·가족학·소비자학·아동학 및 주거학 등의 연구분야가 어떠한 방식으로 복지적 관점을 적용할 것이며, 그 결과 가정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자원경영학 연구자들은 가정자원관리, 생활설계상담, 시간관리와 여가생활, 가계재무관리, 공공가정경영, 시설운영과 관리, 가사노동과 정책, 주부연구, 가족기업 등 다양한 연구를 심화시킴에 있어 어떻게 '복지'와 연계시킬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혜령 외, 2000)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관심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어떤 복지적 요구가 있으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즉 가정복지와 관련되어 추구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최근 들어 가족 혹은 가정에 대해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이 집중되며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화되고 또 다양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족 구조의 다양화, 가족원 수의 감소 등 가정과 관련된 현상과 맞물려 갖가지 가정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아동·청소년·노인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이혼율의 증가와 저출산율, 가정폭력, 가출이나 도박 등과 관련된 주부문제, 거기에 과소비에 신용불량, 가계부채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원정출산이나 해외이민열풍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결국 가정의 문제와 맞

달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가정은 왜 이렇게 다양한 문제와 맞닿아 있을까? 많은 원인과 이를 둘러싼 조건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역량과 가정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가정의 유형과 구조, 크기 등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여전히 구성원에 대한 보호, 부양, 양육과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복지를 일차적으로 가정에 맡겨놓는 '선가정 후사회'의 복지적 접근은 가정생활에 큰 부담, 곧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 (조희금 외, 2002).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는 방식이 곧 자녀와 노인유기, 가출, 혼인을 저하, 이혼율 급증, 출산율 저하 등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곧 가정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관점을 달리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가정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고,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문제의 예방과 변화를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공, 또 이러한 일을 담당할 전문가 양성과 전문시설 설립 등 다양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미 취업여성의 증가와 함께 지금까지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해 온 가정살림, 육아, 자녀 교육 등과 같은 가정경영활동을 사회가 분담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제 비단 맞벌이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 뿐 아니라, 전반적인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가정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구성원에 대한 부양과 보호의 범주를 선택하게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가정생활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검증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연구자들의 연구과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가정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가, 가정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어떤 범주·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이를 전달하는 전문가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기관·시설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등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들이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시화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정복지 전문가 즉 가정복지사와 가정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체의 활성화에 힘입어 각 지역별로 지역주민과 그 가정에게 제공되는 가정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역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요구도의 조사와 분석이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복지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가정복지'라는 개념은 있으나, 아직 일반인들에게 가정복지가 무엇인지, 가정복지사는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인지, 가정복지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축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복지사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가정복지사 양성과 교육의 틀, 내용과 범주 등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가정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내용과 범주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 주

민의 요구도를 파악한 결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구도가 큰 가정복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를 모색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가정복지의 이론적 작업의 활성화, 구체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전문가 양성 등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목표에 따라 울산광역시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복지사 및 가정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 때 특별히 현재 가정복지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가정복지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함에 있어 다양한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관련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현재 이용하는 이용자 그리고 비이용자의 요구도를 비교하는 결과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복지 전문가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요구를 갖고 있을 것이며, 가정생활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고려할 기회가 있었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정복지 관련 시설의 이용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가정복지의 개념

1990년대 중반 이래 생활과학 및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복지사회로 향하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가정복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시켜 왔다. 생활과학 분야에서 가정복지 개념

은 가족복지와 유사하게 쓰이고 있으며 가정생활복지라는 용어도 함께 쓰이고 있다.

가정복지의 개념과 관련된 주된 쟁점을 보면, 우선 기존의 가족복지 개념이 일견 사회복지의 하위분야라는 인식과 함께 보다 생활과학적 관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로 가정복지를 사용하며, 가정복지와 가족복지의 차이점을 명료화 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송혜림, 1999; 송혜림, 2000). 이러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족복지가 개념적으로는 가정생활의 통합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가족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제한되는 한계에 주목하면서, 가정의 인적체계와 물적체계의 상호작용 및 가정생활을 둘러싼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 또한 다양한 공동체적 삶의 포괄, 생활의 과정 등을 강조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가정복지의 유용성을 제시하여 왔다.

한편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규정하는 가족복지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 내지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한국사회복지대학협의회, 1998) 혹은 가족생활을 보호·보장·강화하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반 서비스활동(조홍식 외, 1998)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사한 목표를 갖고 정부와 민간기관이 가족생활을 강화하고 사회적응과 가족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도와주는 일련의 사업(박송규, 1998)을 가족복지라 칭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가족복지는 다분히 서비스 혹은 사업으로 구체화되는 개념이며, 서비스의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과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가 구별된다. 즉 대상은 개인 혹은 가족이며 주체는 국가, 정부, 민간기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생활과학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

달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가정은 왜 이렇게 다양한 문제와 맞닿아 있을까? 많은 원인과 이를 둘러싼 조건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역량과 가정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가정의 유형과 구조, 크기 등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여전히 구성원에 대한 보호, 부양, 양육과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복지를 일차적으로 가정에 맡겨놓는 '선가정 후사회'의 복지적 접근은 가정생활에 큰 부담, 곧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 (조희금 외, 2002).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는 방식이 곧 자녀와 노인유기, 가출, 혼인을 저하, 이혼율 급증, 출산율 저하 등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곧 가정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관점을 달리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가정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고,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문제의 예방과 변화를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공, 또 이러한 일을 담당할 전문가 양성과 전문시설 설립 등 다양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미 취업여성의 증가와 함께 지금까지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해 온 가정살림, 육아, 자녀 교육 등과 같은 가정경영활동을 사회가 분담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제 비단 맞벌이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 뿐 아니라, 전반적인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가정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구성원에 대한 부양과 보호의 범주를 선택하게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가정생활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검증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연구자들의 연구과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가정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가, 가정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어떤 범주·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이를 전달하는 전문가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기관·시설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등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시화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정복지 전문가 즉 가정복지사와 가정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체의 활성화에 힘입어 각 지역별로 지역주민과 그 가정에게 제공되는 가정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역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요구도의 조사와 분석이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복지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가정복지'라는 개념은 있으나, 아직 일반인들에게 가정복지가 무엇인지, 가정복지는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인지, 가정복지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축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복지사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가정복지사 양성과 교육의 틀, 내용과 범주 등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가정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내용과 범주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 주

민의 요구도를 파악한 결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구도가 큰 가정복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를 모색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가정복지의 이론적 작업의 활성화, 구체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전문가 양성 등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목표에 따라 울산광역시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복지사 및 가정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 때 특별히 현재 가정복지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가정복지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함에 있어 다양한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관련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현재 이용하는 이용자 그리고 비이용자의 요구도를 비교하는 결과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복지 전문가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갖고 있을 것이며, 가정생활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고려할 기회가 있었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정복지 관련 시설의 이용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가정복지의 개념

1990년대 중반 이래 생활과학 및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복지사회로 향하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가정복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시켜 왔다. 생활과학 분야에서 가정복지 개념

은 가족복지와 유사하게 쓰이고 있으며 가정생활복지라는 용어도 함께 쓰이고 있다.

가정복지의 개념과 관련된 주된 쟁점을 보면, 우선 기존의 가족복지 개념이 일견 사회복지의 하위분야라는 인식과 함께 보다 생활과학적 관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로 가정복지를 사용하며, 가정복지와 가족복지의 차이점을 명료화 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송혜림, 1999; 송혜림, 2000). 이러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족복지가 개념적으로는 가정생활의 통합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가족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제한되는 한계에 주목하면서, 가정의 인적체계와 물적체계의 상호작용 및 가정생활을 둘러싼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 또한 다양한 공동체적 삶의 포괄, 생활의 과정 등을 강조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가정복지의 유용성을 제시하여 왔다.

한편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규정하는 가족복지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 내지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한국사회복지대학협의회, 1998) 혹은 가족생활을 보호·보장·강화하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반 서비스활동(조홍식 외, 1998)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사한 목표를 갖고 정부와 민간기관이 가족생활을 강화하고 사회적응과 가족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도와주는 일련의 사업(박송규, 1998)을 가족복지라 칭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가족복지는 다분히 서비스 혹은 사업으로 구체화되는 개념이며, 서비스의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과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가 구별된다. 즉 대상은 개인 혹은 가족이며 주체는 국가, 정부, 민간기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생활과학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

는 가정복지의 개념은 가정생활 상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며, 이를 통하여 가정 스스로 생활의 유지·인격의 형성 및 발달·공동문화의 창조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실천과정과 그 결과로서 (조희금 외, 2002),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가정복지 개념을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혹은 요구로부터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조희금 외, 2002 ; 최연실, 1999 ; 송혜림, 1999). 생존 및 생활의 유지에 대한 생물학적 요구, 인격적·철학적 존재로서의 요구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실천과정과 결과를 가정복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가정생활의 주체가 되는 인간과 가족 그리고 그 주체들이 일상적인 가정생활 과정에서 갖게 되는 다양한 욕구체계를 중심으로 가정복지의 개념을 전개시키고 있어, 구성원의 욕구충족이라는 가정생활의 기능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욕구충족과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가정 스스로 주체적인 복지단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가정복지로 보기 때문에,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와 제공받는 객체 혹은 대상을 분리하지 않는다. 이는 곧 가정의 자립이나 자율성을 매우 강조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요보호 개인 혹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접근에서와 같이 가정을 소극적 수혜자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를 스스로 실현하는 주체적 단위로 보고 있다. 이로써 가정의 구성원들은 가정생활의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과 기회 앞에 서게 되며, 가정 스스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대안을 스스로 찾

아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념에서는 단지 문제가 있는 요보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해결과 치료, 개입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변화, 지지, 보장, 예방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등 매우 포괄적인 범주를 내포하고 있어, 복지개념의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현재,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방향이 보다 보편적·예방적 차원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상황에 주목할 때,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자체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일반 국민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로, 사후치료적 서비스에서 예방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김명숙, 1995) 고려할 때, 가정복지의 개념은 가정의 문제해결 뿐 아니라 문제 발생의 예방 그리고 기능 강화에 이르기까지 범주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기능

가정복지의 개념을 규정하고 나면, 가정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및 사업을 전달하는 주체로서의 전문가를 규정할 수 있다 (이승미, 1999). 가정복지 전문가는 ‘가정복지사’라는 명칭을 갖고 활동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정복지 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과 업무를 몇가지로 구분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복지사를 관리자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정복지 개념의 출발이 욕구 혹은 요구라는 차원에서, 가정복지 전문가는 대상 가정이 갖고 있는 요구를 조사·분석·진단함으로써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의

1) 연구자들은 이 정의를 가정복지 혹은 가정생활복지의 개념으로 함께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정복지와 가정생활복지를 동일한 용어로 이해하고 있다 (조희금 외, 2002).

제공 방법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운영 및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복지사는 주치의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가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필요한 경우 보다 전문화된 기관으로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가정복지사는 프로그램 개발, 효과의 평가,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박혜인 외, 1999).

한편 가정복지 관련 업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가정복지사의 역할도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가정생활 관련 문제와 상황에 대한 대화의 상대, 문제해결과 예방에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로서 생활상담자의 역할이다. 둘째, 가정생활 관련 지식전달, 프로그램연구와 개발, 교육과정 제공, 정책연구와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가정생활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셋째, 가정생활 향상에 필요한 소비자정보, 교육정보 등을 수집, 보급하는 전문가로서 생활정보 보급자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넷째, 가정생활 관련 전통문화를 탐색하고 생활문화를 보급하는 전문가로서 생활문화 전달자의 역할이 있다 (가정복지사 홈페이지 www.homewell.co.kr에서 인용).

또 다른 한편으로, 가정복지사가 generalist인가 아니면 specialist인가와 관련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정민자, 1998 ; 송혜림, 1999 ; 이승미, 1999). 사회의 수많은 대상과 현상 중에서 가정이라는 하나의 단위에 접근한다는 차원에서는 특수한 전문가(specialist)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가정생활의 일정한 부분에 접근하는 전문가 즉, 영양사, 주택관리사, 가족상담사, 소비자상담사, 공공가정관리사 등과 비교하면 generalist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전문성과 관련하여 가정복지사의 역할을 크게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보다 전문

적인 내용으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완정, 1999 ; 조희금 외, 2002), 먼저 일반가정복지사의 역할은 요구조사 및 분석자, 진단자, 가정복지 정보 제공자 그리고 자원활용중개자로 보고 있다. 이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정복지사의 역할은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자,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기획·운영자, 가정복지 전문교육자, 가정복지 전문상담자로서, 이러한 역할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도 심층적인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방지법과 관련하여 가정복지사의 역할을 국가와 가정 간의 조정자로 보는 연구가 있다 (박옥임·유숙영, 2001). 즉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문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공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반감, 효율성 등의 차원에서 법의 집행자인 국가기관과 피해자 혹은 행위자 사이를 중재해 주는 조정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를 가정복지사의 역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개념과 범주

1) 가정복지프로그램의 개념

가정복지 프로그램은 가정복지를 위해 실천현장에서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복지 프로그램은 가정복지의 기본 개념으로부터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정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대안들이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복지 프로그램은 그것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단위에 따라 가정복지서비스, 가정복지사업, 가정복지업무 등 다

양한 용어로 지칭되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가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천적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 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조희금 외, 2002).

2) 가정복지프로그램의 범주

가정복지프로그램은 다양한 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예컨대 가정생활주기별로 구별될 수 있다. 해당 가정이 어떤 생활주기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 발달과제가 다를 것이며, 따라서 충족되어야 할 요구도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복지프로그램도 다른 생활주기와는 차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승미, 1999).

또한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 즉 인간의 욕구 차원을 고려하여 생물학적 요구·인지적 요구·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도 고려할 수 있다. 문제의 여부 혹은 정도에 따라 문제를 해결·치료하는 프로그램, 문제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변화·예방하는 프로그램, 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특정한 생활의 형태를 고려하여, 농촌 지역 가정에 보다 유용한 가정복지 프로그램, 중년기 전업주부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정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생활조건에 따라 차별적인 프로그램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조희금 외, 2002).

최근에 실시된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예시로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예비부부교육프로그램(가정복지특별위원회, 2002)을 들 수 있는데, 결혼의 의미와 기대·부부간의 의사소통·성과 사랑·생활설계 등의 내용으로 제공되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의 레 정착이 가정복지에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성년레 정착을 위한 표준모델의 개발 및 보급 사업으로 <함께 가꾸는 가정문화 새로워진 성년식> 프로그램도(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2002).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정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로로서 현장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를 거점으로 할 때 어떤 가정복지프로그램이 유용할지를 모색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 가정과 위기가정으로 대상을 나누어 프로그램을 구성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박혜인 외, 1999),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따라 몇가지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한 결과도 있다²⁾ (경기개발연구원, 2002). 그리고 동일하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교육, 시설운영 및 상담, 행사로 구별하여 그 요구도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조희금·채정숙, 2003)³⁾.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가정복지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자주 논의되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이다. 많은 관련 기관에서

- 2) 프로그램의 내용은 <건강한 가족, 살기 좋은 이웃 만들기> <가족생활설계 프로그램 : 밝은 미래를 준비해요> <부모교육 프로그램: 서로 믿고 존중해요> <주부대학 프로그램: 주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가족간의 대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랑의 말 한마디가 언 가슴을 녹여요> <지혜로운 가정생활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 3) 교육프로그램에는 결혼준비교육, 생활설계강좌, 부부대화, 자녀의 성교육, 부모자녀대화법, 중년기 건강한 가정, 원만한 고부관계, 치매예방 건강교육, 생활예절 교육, 전통생활문화 이해, 레크리에이션, 성인병예방, 현명한 소비자교육이 있으며, 시설운영 및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방과후 아동지도반 운영, 가족상담, 자녀교육상담, 소비자상담이 있고, 행사 프로그램에는 우리지역 문화체험, 마을 일뜰시장 개설, 자원봉사동아리활동, 장담그기 행사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다 (조희금·채정숙, 2003:138).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가정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가시적으로는 가정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정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따라서 가정복지 프로그램을 어떤 범주의 내용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할 때,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식을 비교·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기존의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구체적 프로그램들은 아동복지·청소년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 및 지역복지라는 분야에 포함되어 버려, 정작 가정복지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내용은 가정의례 관련 프로그램 혹은 가정문제 상담 관련 프로그램 등으로 매우 미흡했던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복지 실천의 장으로서의 사회복지관 효용성 연구에서는 (이성희·이승미, 1999),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기존의 가정복지사업으로 조사된 가정문제상담, 자격증교육, 교양교육, 무료법률상담 등을 뛰어넘어, 가정생활 관련 분야의 개설 희망 강좌를 분석함으로써, 가정복지사업 혹은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시된 가정복지 프로그램은 가족관계 영역, 가정관리 및 경제영역 그리고 기타영역으로⁴⁾ 구분되는데, 그 내용상 건강과 영양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다분히 가정관리학의 연구분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보다 앞서 가정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한 연구(임정빈 외, 1997)에서는, 가정복지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같

은 내용의 프로그램이라도 교육과 상담으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구성된 프로그램은 가족관계개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가정생활개선, 재산증식 및 조세관련, 소비생활개선, 노후생활준비, 건강관리, 주생활관리,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가정생활관련법률상식, 가정소득 증대, 자원봉사, 생활문화육성 등의 내용이다. 따라서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만, 그 주된 내용은 앞서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정관리학 분야의 주제들을 알 수 있다.

4. 관련 변수의 고찰

가정복지사와 가정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분석하기 위한 관련변수의 고찰에서, 가정복지사와 관련된 요구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에, 가정복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요구도 및 인식 등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고찰하고자 한다.

전국의 여성을 대상으로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임정빈 외, 1997)를 보면, 먼저 가족관계개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가정생활개선, 재산증식 및 조세관련, 소비생활개선, 노후생활준비, 건강관리, 주생활관리,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가정생활관련법률상식, 가정소득 증대, 자원봉사, 생활문화육성과 같은 프로그램을 교육과 상담으로 나누어 그에 대한 요구도를 연령, 학력, 소득, 취업여부, 가족형태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변수보다는 연령 그리고 지역에 따른

4) 가족관계영역에는 부부간 대화, 부모자녀간 대화, 교부간 대화, 자녀양육기술, 부부의 성, 자녀성교육, 노인문제가 포함되며, 가정관리 및 경제영역에는 가정생활설계, 시간관리와 여가생활, 가정의 경제생활과 금전관리,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피해구제 그리고 기타 영역에는 가정생활관련법제, 가족원의 건강과 영양, 남녀평등문제가 포함된다 (이승미·이성희, 1999:12).

요구도의 차이가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복지 상담프로그램 영역에서도 역시 다른 변수보다는 연령과 지역에 따른 집단별 요구도 차이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정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분석한 연구(이성희·이승미, 1999)의 결과를 보면, 일단 부부간 대화, 부모자녀간 대화, 고부간 대화, 자녀양육기술, 부부의 성, 자녀성교육, 노인문제, 가정생활설계, 시간관리와 여가생활, 가정의 경제생활과 금전관리,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피해구제, 가정생활관련법제, 가족원의 건강과 영양, 남녀평등분제와 같은 프로그램 중에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강좌의 우선순위가 부모자녀간 대화, 가족원의 건강과 영양, 부부간 대화, 자녀성교육, 자녀양육기술, 시간관리와 여가생활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피해구제 순으로 나와,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일곱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 영향 미치는 변수별 차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연령·학력·소득·자녀유무·복지관이용유무 중에서 소득의 경우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나머지 변수들은 영역에 따라 집단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조희금·채정숙, 2003), 요구도 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는 치매예방교육, 농산물직거래장터, 성인병예방, 부모자녀대화법, 자녀의 성교육 등의 순으로 나왔으며, 현재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는 부부대화, 자녀의 성교육, 부모자녀대화법, 치매예방건강교육, 성인병예방 그리고 자원봉사동아리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령, 결혼상태, 생활주기, 학력, 직업, 소득, 주거형태와 같은 변수에 따른 집단별 요구도 차이를 보면, 다른 변수보다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영역에 대한 요구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과 조사도구

현재 가정복지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정복지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분석하는 실증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관 두 곳, 여성회관 두 곳, 시민단체(YMCA) 그리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좌(프로그램)를 이용하고 있는 전업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2002년도 5월부터 6월에 걸쳐 질문지 조사를 하였으며, 사회복지관 150부, 여성회관 150부, 시민단체 100부, 백화점 문화센터 100부 등, 총 500부를 배부한 결과 390부가 회수되었는데,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367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관 105부, 여성회관 111부, 시민단체 80부, 백화점 문화센터 7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도구인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대상자의 인적 사항 외에 현재 시설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 그리고 가정복지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위해서는 연령, 학력, 가족수, 가계소득, 취업경험을 물어보는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시설 이용에 관해서는 시설 이용의 동기, 이용빈도, 이용만족도, 이용 프로그램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시설 이용의 동기는 여가/취미/교제, 전문성/자격증, 가정생활 개선, 사회적 정보와 지식 등 네 가지로 구별하였으며, 이용만족도의 경우에는 이용하는 기관, 프로그램의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등 세 가지 항목에서의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가정복지사에 대한 요구도 문항으로는 가정복지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자료(가정복지사 홈페이지)를 참고로 상담자, 교육자, 정보제공자, 문화전달자 등 4가지 가정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로 질문하였으며, 가정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역시 선행연구(임정빈 외, 1998; 이성희·이승미, 1999)를 참고하여 생활과학/가정복지학 영역에서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이 나온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8가지 프로그램, 즉 부모자녀간 대화기술, 부부간 대화기술, 부모역할, 생활상 정보와 활용방안, 시간관리/여가, 금전관리, 건강/영양 그

리고 노후설계를 선정하였다. 이 프로그램 중 개설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문항을 토대로, 조사대상자의 인적 사항 그리고 시설 이용 관련 변수에 따라 가정복지사 그리고 가정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집단간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의 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력, 가족수, 가계소득 및 취업경험 등은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367)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대	89	24.3
	30대	176	48.0
	40대 이상	102	27.8
학력	중학교 졸업	67	18.3
	고등학교 졸업	158	43.1
	대학교 이상	142	38.7
가족수	2인	12	3.3
	3인	118	32.2
	4인	142	38.7
	5인 이상	95	25.9
가계소득	150만원 이하	48	13.1
	150-249만원	99	27.0
	250-349만원	111	30.2
	350-449만원	97	26.4
	450만원 이상	12	3.3
취업경험	유	172	46.9
	무	195	53.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현재 가정복지 관련 시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으로 하였는데, 연령으로는 3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 이상, 20대의 순이며 평균 연령은 36세이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3.1%로 가장 많으며 가족수는 4인이 가장 많다. 가계소득집단으로 보면 250-349만원 사이가 3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50-249만원, 350-449만원의 순으로 나왔으며, 조사대상자의 46.9%가 취업경험이 있다.

2. 조사대상자의 가정복지 관련시설 이용 실태

조사대상자들이 현재의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 중 가장 많은 비

율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음악·미술인데, 노래교실/종이접기/악기연주/그림 그리기 등이 포함되며 전체의 22.6%에 해당한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그 다음이 실용(22.1%), 체육(19.6%), 컴퓨터(19.1%), 자녀양육 및 지도, 글짓기와 문화 등의 순으로 나왔다.

시설별로 보면,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경우 음악·미술 참여의 비중이 제일 높은 반면, 여성회관과 시민단체의 경우는 실용 그리고 문화센터에서는 체육에 대한 참여비율이 제일 높아,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글짓기·문화의 경우는 모든 시설에서 가장 참여비율이 적다.

현재 시설을 이용한 기간을 살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이용 프로그램의 종류와 분포

이용프로그램	빈도(%)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시민단체	문화센터	전체평균
실용(꽃꽂이, 조리 등)	20(19.0)	31(27.9)	21(26.3)	9(12.7)	81(22.1)
체육(에어로빅 등)	24(22.9)	15(13.5)	12(15.0)	21(29.6)	72(19.6)
음악·미술	27(25.7)	28(25.2)	13(16.3)	15(21.1)	83(22.6)
자녀양육·지도	10(9.5)	12(10.8)	8(10.0)	12(16.9)	42(11.4)
컴퓨터	20(19.0)	23(20.7)	19(23.8)	8(11.3)	70(19.1)
글짓기·문화	4(3.8)	2(1.8)	7(8.8)	6(8.5)	19(5.2)
합	105(100.0)	111(100.0)	80(100.0)	71(100.0)	367(100)

<표 3> 시설별 이용기간

내용	빈도(%)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시민단체	문화센터	전체평균
1개월 이내	18(9.5)	19(17.1)	22(27.5)	15(21.1)	74(20.2)
1-3개월	30(28.6)	56(50.5)	30(37.5)	28(39.4)	144(39.2)
3-6개월	46(43.8)	32(28.8)	23(28.8)	22(30.9)	123(33.5)
1년 이상	11(10.5)	4(3.6)	5(6.3)	6(8.5)	26(7.1)
합	105(100.0)	111(100.0)	80(100.0)	71(100.0)	367(100)

전반적으로 1-3개월 이용한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고(39.2%), 그 다음이 3-6개월, 1개월 이내 그리고 1년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여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은 3-6개월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나머지 여성회관·시민단체·문화센터는 1-3개월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다.

한편 현재 가정복지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와 같다.

시설을 이용하는 동기로는 여가/취미/교제가 1순위로 전체 이용자의 41.4%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전문성/자격증 관련(29.4%)이며, 가정생활 개선, 사회정보/지식 향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시설 이용의 동기를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회관의 경우는 여가/취미/교제보다는 전문성/자격증 취득이 1순위로 나타나 다른 시설과는 다른 실태를 보인다. 이는 여성회관의 경우 많은 이용자들이 취업을 위한

준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성회관 이용자들이 현재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실용, 컴퓨터 등에 대한 참여가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센터의 경우는 가정생활 개선의 동기보다는 사회적 정보, 지식 향상의 동기로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 역시 다른 시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 및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만족도는 1-5점까지의 척도로 조사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용하는 기관,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등 세가지 항목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프로그램의 내용(3.6점)이며 그 다음이 이용하는 기관 (3.2)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방안(2.9)으로 나왔

<표 4> 시설 이용의 동기

이용동기	빈도(%)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시민단체	문화센터	전체평균
여가활동/취미생활 즐김/교제	50(47.6)	38(34.2)	32(40.0)	32(45.1)	152(41.4)
능력, 전문성 향상/자격증 취득	26(24.8)	45(40.5)	25(31.3)	12(16.9)	108(29.4)
가정생활 개선	21(20.0)	21(18.9)	12(15.0)	11(15.5)	65(17.7)
사회적 정보, 지식 향상	8(7.6)	7(6.3)	11(13.8)	16(22.5)	42(11.4)
합	105(100.0)	111(100.0)	80(100.0)	71(100.0)	367(100)

<표 5> 시설이용 만족도

내용	만족도평균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시민단체	문화센터	전체평균
이용하는 기관	2.8	3.1	3.3	3.7	3.2
프로그램 내용	3.3	3.8	3.2	4.1	3.6
프로그램 운영방안	3.0	3.2	2.9	2.5	2.9
만족도평균	3.03	3.37	3.13	3.43	3.23

다. 시설별로는 문화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여성회관, 시민단체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순으로 나왔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기관 자체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문화센터의 경우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은 높으나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만족이 매우 낮는데, 가격책정·강사선정·프로그램 실시 기간과 시기 등이 운영방안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러한 운영방안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프로그램 참여가 자신의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

3. 가정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분석

가정복지사에 대한 요구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정복지사의 역할인 가정생활 상담자, 가정생활교육자, 생활정보 보급자 그리고 생활문화 전달자로 구별하여 이러한 역할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였는데, 1-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요구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변수는 연령, 학력, 취업경험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그리고 이용 기관, 프로그램 이용 동기, 가정복지사 인지 여부⁶⁾ 등과 같은 시설 이용 관련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가정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평균을

<표 6> 참여 프로그램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내용	빈도(%)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시민단체	문화센터	전체평균
도움이 된다	68(64.8)	48(43.2)	38(47.5)	39(54.9)	193(52.6)
그저 그렇다	30(28.6)	41(36.9)	22(27.5)	12(26.9)	105(28.6)
도움이 되지 않는다	7(6.7)	22(19.8)	20(25.0)	20(28.2)	69(18.8)
합	105(100.0)	111(100.0)	80(100.0)	71(100.0)	367(100)

가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⁵⁾.

전반적으로 현재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가정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52.6%)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8.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면, 가정생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4.12) 그 다음이 가정생활 정보 제공자(3.89), 가정생활 교육자(3.28) 그리고 가정생활 문화 보급자(3.12)로 나타나 상담과 정보 제공이 가정복지사에게 기대하는

- 5)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는가를 통하여 조사하였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부터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분석할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를 합하였고, 도움이 되는 편이다와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를 합하여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6) 시설별 조사대상자들의 가정복지사 인지도는 다음 표와 같다.

내용	빈도(%)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시민단체	문화센터	전체평균
들어본 적이 있다	39(37.1)	52(46.9)	32(40.0)	14(19.7)	137(37.3)
들어본 적이 없다	66(62.9)	59(53.1)	48(60.0)	57(80.3)	230(62.7)
합	105(100.0)	111(100.0)	80(100.0)	71(100.0)	367(100)

<표 7> 가정복지사 역할에 대한 요구도와 집단간 차이

변수	집단(빈도)	가정복지사의 역할							
		가정생활 상담자		가정생활 교육자		가정생활 정보제공자		가정생활 문화보급자	
요구도평균		4.12		3.28		3.89		3.12	
연령	20대(89)	4.23	a	3.23		3.98		3.08	
	30대(176)	4.13	ab	3.31		3.92		3.13	
	40대+(102)	3.99	b	3.29		3.83		3.16	
	F값	4.61*		1.32		1.98		.98	
학력	중졸(67)	4.22		3.30		3.90		3.11	
	고졸(158)	4.18		3.23		3.87		3.16	
	대졸이상(142)	4.20		3.27		3.86		3.13	
	F값	.89		1.09		.51		1.09	
취업경험	유(172)	4.19		3.26		3.88		3.10	
	무(195)	4.03		3.29		3.91		3.13	
	t값	3.89*		.49		1.87		2.01	
가정복지사인지	안다(137)	4.16		3.38		4.09		3.14	
	모른다(230)	3.99		3.24		3.97		3.10	
	t값	5.27*		5.09**		3.67*		.98	
이용 기관	사회복지관(105)	4.31	a	3.29	b	4.12	a	3.10	
	여성회관(111)	3.99	b	3.12	b	3.89	b	3.13	
	시민단체(80)	4.19	c	3.35	a	4.09	ab	3.12	
	문화센터(71)	4.10	bc	3.38	a	3.71	b	3.11	
	F값	11.56***		6.23**		7.59**		.78	
이용 동기	여가/취미/교제(152)	3.89	b	3.12	ab	3.67	b	3.16	
	전문성/자격증(108)	4.09	b	3.45	a	3.98	ab	3.09	
	가정생활향상(65)	4.22	a	3.33	ab	4.05	a	3.11	
	사회정보, 지식(42)	4.16	ab	3.25	b	3.87	ab	3.06	
	F값	4.67*		7.79**		5.43**		2.84	

* P<.05 ** P<.01 *** P<.001

주요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복지사 양성 및 교육 체계에서 어떤 내용을 보다 강화시켜야 하는가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복지사 역할에 대한 요구도를 변수에 따라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 학력, 취업경험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보다

가정복지사 인지, 이용기관, 이용동기와 같은 변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더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생활문화 보급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에서는 변수에 따라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연령의 경우 가정생활 상담자로서의 역할에서만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령이

젊을수록 이 역할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으며, 20대와 40대 이상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세대가 젊을수록 가정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상담자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경험은 가정생활 상담자에 대한 요구도에서 차이를 보여 취업경험이 있는 집단의 요구도가 더 높다.

한편 가정복지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가정생활문화보급자로서의 역할을 제외한 나머지 세 역할에 대한 요구도에서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어, 가정복지사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 집단이 일관되게 더 요구도가 높다. 이는 전문가의 존재를 알고 있을 때, 그 전문가의 서비스가 보다 구체적·적극적인 요구로 표현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가정복지사의 활동영역을 높이고 보다 많은 가정들에게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복지사 자체에 대한 홍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가 역시 상담자, 교육자 그리고 정보 제공자 등 세 가지 가정복지사 역할에 대한 요구도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생활 상담자 역할에 대한 요구도는 사회복지관 이용자가 가장 높고 여성회관 이용자가 가장 낮은 반면, 가정생활 교육자에 대한 요구도는 문화센터와 시민단체 이용자가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이용자보다 유의하게 높다. 또한 가정생활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는 사회복지관 이용자가 여성회관, 문화센터 이용자보다 유의하게 높다.

이용 동기도 이와 유사한 차이를 나타내어, 상담자 그리고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는 가정생활 향상을 동기로 시설을 이용하는 집단에서 가장 높은 반면 여가/취미/

교제를 동기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도는 가장 낮다. 반면 가정생활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는 전문성 증진/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동기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높아, 향후 취업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 가정생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가정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가정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부모자녀간 대화기술, 부부간 대화기술, 부모역할, 생활상의 정보와 활용방안, 시간관리와 여가, 금전관리, 가족의 건강과 영양, 노후설계 등과 같은 8가지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요구도는 1-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요구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와 관련 변수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가정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가장 요구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부모자녀간 대화기술(4.10) 그리고 부모역할(4.09)이며, 그 다음이 금전관리(4.07), 건강/영양(4.06), 노후설계(4.01), 시간관리/여가(3.99), 부부간 대화기술(3.78) 그리고 생활상 정보와 활용방안(3.67)의 순으로 나타나, 자녀와의 관계 유지와 관련된 프로그램(대화기술, 부모역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이성희·이승미, 1999)의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대화기술) 요구도는 낮아, 가족관계 중에서도 부부관계가 아닌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 가정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와 집단간 차이(1)

변수	집단(빈도)	부모자녀간 대화기술		부부간 대화기술		부모역할		생활상 정보와 활용방안	
요구도평균		4.10		3.78		4.09		3.67	
연령	20대(89)	3.77	c	3.87	a	3.67	c	3.78	
	30대(176)	4.08	b	3.54	b	3.90	b	3.63	
	40대+(102)	4.32	a	3.67	b	4.30	a	3.65	
	F값	15.88***		5.67**		13.21***		2.89	
학력	중졸(67)	3.92	b	3.56	b	3.99		3.55	b
	고졸(158)	4.09	b	3.66	b	4.08		3.94	a
	대졸이상(142)	4.21	a	3.91	a	4.13		3.61	b
	F값	6.89**		4.28*		2.81		5.61**	
취업경험	유(172)	4.00		3.72		4.01		3.64	
	무(195)	4.23		3.79		4.13		3.69	
	t값	4.08*		1.21		2.78		1.31	
가정복지사인지	안다(137)	4.14		3.56		4.13		3.56	
	모른다(230)	4.09		3.81		4.06		3.71	
	t값	.67		1.24		1.77		.67	
이용기관	사회복지관(105)	4.09	b	3.68		4.08		3.45	
	여성회관(111)	4.21	a	3.67		4.12		3.62	
	시민단체(80)	4.19	a	3.77		4.10		3.67	
	문화센터(71)	4.01	b	3.89		3.99		3.78	
	F값	7.82**		2.01		1.64		1.89	
이용동기	여가/취미/교제(152)	3.99	c	3.71	b	3.89	b	3.69	b
	자격증/전문성(108)	4.17	b	3.78	b	4.08	b	3.56	b
	가정생활향상(65)	4.29	a	3.91	a	4.29	a	3.88	a
	사회정보/기술(42)	4.05	c	3.55	b	4.01	b	3.61	b
	F값	11.78***		5.44**		8.97***		4.32*	

* P<.05 ** P<.01 *** P<.001

변수별로 살펴 보면, 연령의 경우 부모자녀간 대화기술, 부부간 대화기술, 부모역할, 건강과 영양 그리고 노후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데, 부모자녀간 대화기술 그리고 부모역할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요구도가 더 높아져, 자녀가

나이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부부간 대화기술에 대한 요구도는 2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가장 낮아, 신혼기나 결혼 초기에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도움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 9> 계속

변수	집단(빈도)	시간관리/여가		금전관리		건강/영양		노후설계	
요구도평균		3.99		4.07		4.06		4.01	
연령	20대(89)	4.01		4.06		3.89	b	3.71	c
	30대(176)	3.98		4.08		4.06	b	3.92	b
	40대+(102)	3.97		4.09		4.19	a	4.24	a
	F값	1.01		.98		7.62**		23.09***	
학력	중졸(67)	3.66	b	4.20	a	4.08		4.18	a
	고졸(158)	4.01	a	4.03	b	4.02		3.99	b
	대졸이상(142)	4.09	a	4.23	a	4.07		4.02	b
	F값	6.92**		12.08***		1.89		5.23**	
취업경험	유(172)	3.97		4.06		4.04		4.02	
	무(195)	4.01		4.13		4.07		3.98	
	t값	.78		3.24*		.22		1.29	
가정복지사인지	안다(137)	4.01		4.06		4.02		4.00	
	모른다(230)	3.98		4.09		4.07		4.02	
	t값	.23		.97		2.01		.24	
이용기관	사회복지관(105)	3.85	b	4.05		4.02	b	3.72	b
	여성회관(111)	3.90	b	4.10		3.99	b	3.89	b
	시민단체(80)	4.01	ab	4.08		3.87	b	3.78	b
	문화센터(71)	4.15	a	4.11		4.15	a	4.09	a
	F값	3.60*		.46		3.24*		3.56*	
이용동기	여가/취미/교제(152)	3.67	b	4.08		4.18	a	4.07	a
	자격증/전문성(108)	4.01	a	4.05		4.04	a	3.87	b
	가정생활향상(65)	4.05	a	4.11		4.20	a	4.10	a
	사회정보, 기술(42)	3.73	b	3.99		3.77	b	3.72	b
	F값	6.77**		2.10		10.12***		7.25**	

* P<.05 ** P<.01 *** P<.001

는데, 이는 생활주기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건강과 영양 그리고 노후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도 역시 연령이 높아 질수록 함께 높아져 건강, 노후에 대한 관심과 연령 간 직접적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가정복지사에 대한 요구도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크지 않았던 데 비하여 프로그램에

서는 연령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특별히 프로그램의 선정에 있어 연령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선행연구(임정빈 외,1998; 조희금·채정숙, 2003)에서도 연령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보고하고 있다.

학력의 경우는 부모자녀간 대화기술, 부부

간 대화기술, 생활상 정보와 활용방안, 시간관리와 여가, 금전관리 그리고 노후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부모자녀간 그리고 부부간 대화기술에 대한 요구도가 일관되게 높아져,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가족관계 증진에 대한 요구가 전반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활상 정보와 활용방안에 대한 요구도는 고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다. 자원관리 영역에서 시간관리와 여가 프로그램, 금전관리 프로그램에서는 학력이 다소 차이 나는 결과를 보여, 시간관리와 여가에 대한 요구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데 비하여, 금전관리에 대한 요구도는 대졸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졸, 고졸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중졸집단에서 가장 높는데, 학력과 소득수준 혹은 경제적 수준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중졸집단의 경우 소득의 제한성 때문에 금전관리나 노후설계에 대한 걱정, 관심이 많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취업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프로그램 영역은 부모자녀간 대화기술 그리고 금전관리로서,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부모자녀간 대화기술, 금전관리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온 프로그램인데,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이러한 영역에 대한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정복지사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부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집단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부모자녀간 대화기술, 시간관리/여가, 건강/영양, 노후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서 나타나는데, 부모자녀간 대화기술에 대한 요구

도는 여성회관 이용자가 가장 높고 문화센터 이용자가 낮다. 반면 시간관리/여가, 건강/영양 그리고 노후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문화센터 이용자가 다른 집단보다 높다.

이용동기에 따른 차이는 금전관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정생활향상을 동기로 하는 이용자들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가장 요구도를 높게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복지 프로그램이 가정생활향상에 직접적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복지'가 중요해지고 그 범주가 확산되는 복지사회에서, 그리고 가정문제가 심각해지고 다양해 지는 현 시점에서, 가정복지연구가 보다 가시화·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맥락에서 출발하여, 가정복지사 및 가정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가정복지사 양성 및 교육의 틀과 내용을 설정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순서와 범주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가정복지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한 결과 요약과 함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에서는 가정생활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정보 제공자, 교육자, 문화 전달자 등의 순서로 나왔다. 즉 상담과 정보 제공이라는 두 가지 역할이 가정복지사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여지며, 따라서 가정복지사 양성에 있어서 교과과정, 교육체계 등에 이러한 결과가 반영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상담과 관련된 내용들이 '복지'적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과목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를 탐색·수집·분석·데이터베이스화·제공하는 일련의 정보 제공 업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관리 및 경영 분야의 내용이 다양한 과목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정복지사에 대한 인지 여부는 가정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에 영향을 미쳐, 가정복지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집단의 요구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가정복지사의 활동범주를 확장하고 현장에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사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복지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전략 및 방안에 대한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가와 프로그램 이용 동기에 따라 가정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가 차이 난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현장에 가정복지사가 투입하여 활동할 때 시설별로 더 비중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활동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속성을 파악하여 어떤 동기를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를 구별, 적절한 가정복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러한 연구결과의 정보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서는 부모자녀간 대화기술과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았으며, 생활상 정보와 활용방안, 시간관리/여가 등에 대한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가족관계 중에서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관심과 요구도를 반영하여,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가정복지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대상을 세분하여 자녀의 연령이나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성을 차별화 시켜 이용자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는 연령에 따라 그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몇가지 가정복지 프로그램은 연령에 따라 요구도에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가정복지 프로그램 구성시 이용자의 연령을 비중있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정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설에 따라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에 따라 가정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설별 그리고 이용자의 특성별로 가정복지프로그램도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현재 가정복지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요구도 분석 혹은 이용자와 비이용자간 요구도의 비교, 그리고 현재 가정복지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평가 등의 결과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시설별 그리고 이용자의 특성별로 가정복지사의 우선적인 역할과 업무,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등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하고 나아가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방안, 활성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정보를 시간적·공간적 제한 없이 가정복지연구자, 가정복지 업무 수행자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성, 데이터베이스화작업 등 실천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작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론적 연구와 현장 중심적 활동이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가정복지사 홈페이지 www.homewell.co.kr
- 2) 경기개발연구원(200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연구 보고서.
- 3) 구혜령(2000). 가정자원관리 연구자의 현장 실천 사례 -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 활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4) 대한가정학회 가정복지특별위원회(2002).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 5) 박송규(1998). 사회복지법론. 한국법제연구원.
- 6) 박옥임·유숙영(2001). 가정폭력방지법상 '가정복지사'의 개입에 관한 대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201-210.
- 7) 박혜인 외(1999). 가정복지사의 주민자치센터 참여방안에 대한 연구 - 가정복지센터의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85-190.
- 8) 송혜림(1999). 가정복지의 개념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의 정립.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 9) 송혜림(2000). 가정복지의 기본개념과 가정복지기본법. 대구대학교 2000년도 학술세미나 <21세기 가정복지의 전망과 과제> 자료집.
- 10) 이성희·이승미(1999). 가정복지 실천의 장으로서의 사회복지관 효용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18.
- 11) 이승미(1999).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가정복지서비스의 실천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 12) 이완정(1999). 가정복지사 양성 및 관리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 13) 임정빈 외(1997).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03. 163-180.
- 14) 정민자(1998).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가정복지사 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15) 조홍식 외(1998). 가족복지학. 학지사.
- 16) 조희금·채정숙(2003).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133-146.
- 17) 최연실(1999). 가정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 18)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2002). 함께 가꾸는 가정문화 새로워진 성년식 자료집.
- 19) 한국사회복지대학협의회(1998).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이수 교과목 지침서 초안. 교육분과위원회 편저.